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27: 계시록

테드 힐드브란트 [고든 칼리지]

안녕하세요,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입니다. 신약 역사, 문학, 신학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세션 번호 27, 요한 계시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저는 래리 크랩 박사라는 사람과 함께 석사 심리학 프로그램을 수강했습니다. 크랩은 최고의 선생님 중 한 분이셨고, 학생들은 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왔고 기말고사 며칠 전이었는데, "방금 훌륭한 책을 읽었어요. 제 인생에서 읽은 책 중 가장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위해 책을 내주려고 합니다. 이건 기말고사 3일 전이었습니다. 이 책을 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말고사 직전에 읽을 수 있게 하고, 기말고사 때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말고사 때 이 책을 다시 살펴볼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역대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그가 그런 짓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학생들이 그냥 재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끝내는 방법이 참 묘하네요. 이렇게 큰 과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3일 남았고, 그들은 이 멍청한 책을 읽게 되었고 그것은 훌륭한 책이었지만, 그는 막 싱크대에서 나왔고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잠언에는 개울 한가운데서 말을 바꾸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울 한가운데서 말을 바꾸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용하자면

제 친구 프로보? 당신은 댄스 파티에 갈 때 같이 온 여자와 함께 떠납니다. 제 아내는 춤을 추지 않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게 그가 한 말이에요. 그는 같이 온 여자와 함께 떠납니다. 그게 그에게는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말씀드리자면, 누구라도 그 속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속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것이 당신의 분노를 조금 불러일으킨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00페이지 분량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 배웠고, 제가 생각하기에 수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여러분은 Quizzlet 형식과 그런 모든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간이나 기말고사를 위해 기어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Quizlet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미 만들어진 세 개의 강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 다섯 강의는 Quizlet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디오도 없었습니다. 벤은 이 수업을 위해 그것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뭐죠? 문제는 그러면, 글썄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강의마다 한 가지 질문을 만들 거예요. 각 강의마다 일반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그냥 훑어보고 메모를 했다면 좋을 거예요. 더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은 Quizzlet 문제가 있는 세 강의에 집중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질문도 몇 개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최소한일 거고, 그 다음에는 게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내가 당신을 데려갔을 때, 나는 당신을 배웠고, 한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나서 나는 아직 물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건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벤이 지금 존재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년에 학생들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희망적으로 다른 사람을 데려가도록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하시나요? 그럼 제가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낼 것이지만, 오늘 밤과 내일 저에게 주어진 세 가지 강의에 집중하세요. 제 아내는 오늘 그녀의 아버지를 데리러 가고 그는 어차피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진행 중이지만, 저는 내일 이것을 끝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그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게시록 자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준비될 것입니다. 질문, 독서. 그런 다음 기억 대 그냥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벤, 복도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붙잡아서 소리가 네트워킹이 안 되고, 뒤쪽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줄 수 있다면. 방금 크리스를 봤어요, 저 밖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 . 소리가 여기서 안 나오고, 저는 모든 걸 쫓았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예요. 그는 남자예요. 그리고, 좋아요. 그는 마법의 터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쫓았어요. 바로 저기에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 사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는 계속 가르치고 그런 걸 하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크게 소리칠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맞나요?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겨진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나요? 핵무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런 다음

이란과 아야톨라를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에서 그런 것들을 수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 과정을 한 번 가르쳤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그 측면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 창세기로 돌아가서,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족장들을 통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다윗을 통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올 이 왕에

대한 기대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갑자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소망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이 얻는 두

가지 개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가 시작에서 중간으로, 그리고 끝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시작

, 중간, 그리고 끝으로 움직이나요? 여러분은 인생의 중간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길을 따라 내리는 결정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사물은 그저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저는 그 일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어나서 매일 같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뭐가 중요해? 전부 순환적이야. 나는 먼지로 가고, 먼지에서 나왔고, 먼지로 돌아간다. 그게 뭐야? 이런 순환적 사고방식에서는 인생이 무의미해지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인생은 순환적이지 않다는 거야. 인생에는 나선형 패턴이 있지만, 끝을 향해 나선형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크리스, 우리가 이해한 것 같아. 좋은 사람이야. 어쨌든, 크리스 임밍, 그는 남자야.

이제 요한 1서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소망을 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자신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는 “우리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깨끗이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계시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설명적인 내용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소망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의 큰 주제 중 하나이며,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이야기에는

놀라운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에는 놀라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울해지십니까? 사실 이번 주는 기말고사입니다.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좋은 시기일 겁니다. 순환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라고 말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서 “지난 3개 강의의 퀴즈렛은 어디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거든요. “젠장”이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창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실망에 실망이 더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점은 요한계시록이 언젠가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볼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면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질문은, 인생에서 정말 무엇을 바라는가입니다. 정말 무엇을 바라는가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좋은 집, 좋은 가족을 바라는가? 성경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바라는가? 그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그를 만나러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제점은 문학 장르라는 것입니다. 이 문학 장르는 종말론적입니다. 제가 종말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특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지금 종말이라고 말할 때, 종말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고 지금 종말론, 세상의 종말에 세상이 폭발하거나 24에서처럼 핵무기가 사방에서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또한 편지입니다. 그것은 또한 요한이 일곱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편지인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도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더 긴 편지이지만, 그것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예언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말하고, 설교하지만, 또한 미래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론적 문학의 다섯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책인데, 묵시록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징주의입니다. 상징주의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글썄요, 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죠.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묵시록 문학은 높은 수준의 상징주의를 사용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온갖 이상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자 머리를 한 동물들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가 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촛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촛대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 촛대, 촛대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네가 내 오른손에 본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신비는 이것이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니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니라.” 당신의 교회에 천사가 있나요? 그러면 천사는 무슨 뜻인가요? 그런데, “천사”라는 단어가 단순히 메신저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메신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신 교회 주변을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생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즉 메신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일곱 별이나 일곱 천사가 일곱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잔대가 다른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상징주의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다른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1장에서 이 책이 상징주의로 가득 찰 것이라는 힌트를 주므로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 언어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천사, 종말 문학, 예를 들어 베드로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든, 또는 당시에 알려진 종말 문학이든, 보통 종말을 기록하던 사람을 동반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아니면 다른 천사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라파엘이나 그런 것.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안내하고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천사적 안내자나 중재자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라. 그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리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고 천사가 이것을 중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묵시문학 전반에 걸쳐 천사가 일종의 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를 보면 그는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천사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22장 8절에 "이것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듣고 보고 나서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천사가 무엇을 할까요, 요한? 저는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무엇을 할까요? 그는 천사가 굉장하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천사에게 말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무엇을 합니까? 천사는 경배를 받으니까? 아니요,

우주에서 경배를 받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지만 그는 [천사]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무엇을 합니까? 천사는 경배를 받습니까? 아니요, 우주에서 경배를 받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지만 그는 [천사]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꿈은 그가 잠들었을 때 밤에 나타납니다. 환상은 그가 깨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종말 문학의 범위는 항상 시간의 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예언 문학은 항상 세상의 끝, 사물이 어떻게 폭발할지 또는 세상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끝은 보통 우주적이고 범위적입니다. 사실 스타워즈는 약간 종말론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끝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세계는 성공하고 어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과 우주적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큰 일들. 마지막으로 이원론이 있습니다. 종말 문학에는 선과 악, 선과 악 사이에 실제로 날카로운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스타워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선과 악 사이에 이런 갈림길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나쁜 쇼가 나오고 그는 약간 좋은 면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지만 약간 나쁜 면도 있어요. 그런 다음 그런 식으로 해결하죠.

어쨌든 저는 종말 문학에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 날카로운 분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웅, 백기사가 있을 겁니다. s와 악의 특징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가르쳤던 데이비드 매튜슨이라는 친구를 계속 언급할 겁니다. 그는 세계를 이끄는 인물 중 한 명이고 제 생각에는 요한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그는 여기서 가르쳤습니다. 저도 나가서 그를 쫓아 덴버까지 가서 그가 30번의 강의와 요한 계시록을 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말 자세한 연구를 원한다면, 매튜슨은 30시간 동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3번 하는데, 그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3번의 강의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의 신약 성경 수업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YouTube[biblicalelearning.org]에 올릴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YouTube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가서 이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꽤 흥미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조롱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을 YouTube에 올립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주면 데이브가 올라올 것입니다.

데이브가 종말론적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마치 그것이 정치적 풍자극인 것처럼 말합니다. 정치적 풍자가 그림을 그리는 만화를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에 있고 누군가가 코끼리를 그린 다음 당나귀가 코끼리의 얼굴을 발로 차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정치적 진술이 될까요? 당나귀가 코끼리의 얼굴을 발로 차는 장면.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당나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둘을

혼동합니다. 당나귀는 어쨌든 한 무리와 코끼리를 의미합니다. 그냥 농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끼리는 다른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나귀와 코끼리 사이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개의 정당, 두 개의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사람들이 돌아볼 때 사람들이 당나귀와 코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 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이 그걸 잊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면 때때로 이런 모든 내재된 역사적 참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666은 어쨌든 무엇을 의미할까요?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있는데, 만약 당신이 그 문화에 있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죠. 저는 어쨌든 90년대 후반에 어떤 사람과 관련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은 나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처드 닉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리처드 닉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 문화에서 거의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갔다면, 여러분은 리처드 닉슨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알아차리는 많은 뉘앙스와 일들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정치 만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정치 만화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시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숨겨진

모든 종류의 참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우리에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2000년 전 교회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은 우리에게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7개 교회에서 쓰여졌을까요? 2000년 전?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7개 교회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미지와 상징주의를 알고, 당나귀와 코끼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정치 만화, 정치적 풍자의 정치적 진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런 것이 종말 문학입니다. 저자는 요한인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존은 스타워즈에 나올 법한 사람입니다. 존 존. 존은 사도 존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고, 저는 모든 접근 방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 계시록에 대한 네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왼쪽으로 걸어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과거 시점, 과거 시점입니다. 제가 과거 시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많은 문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 시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과거 시점을 의미합니까? 과거 시제와 같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점은 이 책을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이 모든 것이 1세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1세기 초기 교회의 씨름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이 단지 1세기에 대한 풍자적인 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황제인 카이사르로서 못된 놈인 네로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한 도미티아누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람을 삼키는 짐승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이 20세기나 21세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세기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과거적 관점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세기 교회와 정말 잘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은 1세기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상징들 중 일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일곱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언급하고 바빌론을 언급합니다. 바빌론, 그는 바빌론과 짐승, 그리고 바빌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세기에 있다면 누구나 알겠지만, 그들이 바빌론을 언급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로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빌론,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가 말하길, 베드로는 로마에 있다고, 그는 로마에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는 자신이 바빌론에 있다고 언급하지만, 모두가 그가 바빌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그들이 로마를 언급하는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빌론이라고 말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빌론이 아니라 로마라는 것을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는 이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편지를 받은 1세기 교회 수신자들이 그 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단점은 만약 그것이 모두 1세기에 일어났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묵시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1세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종말에 더 가까워졌을까요? 세상이 지금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곳을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당신은 언제까지 그럴지 알고 있나요? 사실 1940년이나 1950년까지, 1950년이라고 합시다. 1950년에 세상이 폭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폭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 그렇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두 도시를 파괴한 것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세상을 날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물건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책에서 말하는 것 중 일부는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2000년 동안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점은 1세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그리스도께서 1세기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세기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1세기에 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래서 이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많이 압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것을 1세기에 압축합니다. 저는 그것이 1세기에 너무 많이 압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은 새 예루살렘에서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읽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아랍-이스라엘 갈등으로 폭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적 관점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이것이 실제로 이상주의적인 종류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실에 대해 말하는 개념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과 악의 영적 진실,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선이 이긴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결국 선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14, 15살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결국 선이 이긴다는 것이 기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단순히 결국에 좋은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는 매우 축소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주의적 관점에서의 언어는 모든 것이 상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문제는 그것이 모두 상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적 언어와 문자적 언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류해야 합니다. 이점. 내가 이상주의적 관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물을 하나님의 우주적 특성의 관점에서 끌어올리고 당신이

신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과 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책에

영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관점, 여기서 묘사되는 아이디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실제로 신과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단점은 그것이 역사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적인 관점은 모든 것을 이상에 따라 놓고 역사와 단절시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역사에 매우 잘 뿌리를 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상주의적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상주의적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요? 그것은 그저 이상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나아가고 그리스도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론입니다. 그것은 모두 이상주의입니다. 그것은 결코 현실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육체적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면, 그 책은 역사를 건드려야 합니다. 역사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요한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역사를 되돌아보고 로마가 476년에 함락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 조슈. 476년경에 로마가 함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함락은 요한 계시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1457년에 함락되었고,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되었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고,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개혁이 있는데,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할게요. 요한계시록에는 개혁에 따른 두 증인이 있습니다. 한 증인은 마틴 루터이고 다른 한 증인은 존 칼빈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역사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그냥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져다가 2000년의 교회 역사에 걸쳐 펼칩니다. 그들은 교회 역사의 주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멋진 건 특정 시기에 이런 재앙이 닥쳤다는 걸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닥친 재앙 중 일부는 정말 정말 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앙을 보면, 이봐, 이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관점이야. 기본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 요한계시록의 성취를 본다고 말하는 거야.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교회 역사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최근의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석을 계속 바꿔야 할까?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관점을 바꿔. 그래서 이 역사적 관점은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항상 즉흥적으로 바뀌고 있어. 요한계시록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어디에 있을까? 빌리 그레이엄은 아마도 3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일 거야. 빌리 그레이엄은 책에서 어디에 있을까? 빌리 그레이엄이 거기에 있을까? 아니면 이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슬람을 묘사하고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연관성을 찾기 시작해. 나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래서 이 역사적 것에는 조심해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해석하기 시작할 테니까. 저는 그것이 매우

추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매우 추측적입니다. 그것은 매우 추측적입니다. 추측은 50년에서 100년마다 바뀝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도 모든 견해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마지막 입장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미래를 묘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환난 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당시 경륜주의라고 불리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경륜주의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그들이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기 전에 그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여길까요? 그들은 처음 세 장이 일곱 교회에 쓰여졌고 그것은 1세기에 쓰여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의 네 번째 장부터 끝까지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7년의 환난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무너질 7년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천년 왕국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의 특정 측면을 좋아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책이 미래적 장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문학이며, 모든 것의 종말을 촉진하는 종류의
전망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와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중에 계시록과 다니엘에 대해 논의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이 두 권의 책에 캠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 교회에서, 만약 여러분이 개혁 교회에 있다면, 그들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 캠핑을 할까요? 여러분이 개혁 장로교에 속해 있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많이 다룹니다. 여러분이 메노나이트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산상 수훈을 많이 다룹니다. 평화, 사랑, 산상 수훈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침례교, 경륜주의 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다룹니다. 여러분은 그 두 권의 큰 책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두 가지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미래적 접근 방식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Left Behind 시리즈와 같은 책에 남겨진 단점은 무엇일까요? Left Behind 시리즈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럼 신문을 집어드는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Late Great Planet Earth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Late Great Planet Earth를 수백만 부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요한 계시록을 가져다가 베트남 전쟁과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요한 계시록과 연결시켰을 때요. 여러분은 이런 생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들은 마치 사람의 머리와 등에 전갈의 침이 달린 로커스와 같을 거예요. 그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 헬리콥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꼬리에 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꼬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메뚜기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나온 헬리콥터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헬 린지였어요. 그 책은 수백만 부가 팔렸고, 사실 저는 그 사람이 나이가 꽤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상한 텔레비전에 출연했고 갑자기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그는 지금 7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코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 문제는 추측적인 성격이고,

신문을 손에 들고 추측하며, 오, 이게 세상의 종말이야. 이 사람이 이 재앙을 가져오고 있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아니면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야. 2년 전에 캠핑이라는 사람이 5월 12일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나? 그때 나는 학생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12일에 올 것이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없다고 말했어. 우리 시험은 13일이었거든. 가도 돼. 그런데 문제는 12일에 통과했는데도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야. 오, 맞아. 그는 계산을 잘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틀렸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저는 그를 돌로 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는 잘못된 늙은이이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추측하는 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것은 이런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팀 라헤이와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입니다. 리버티 대학교에 가면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팀

라헤이 박사가 헌정하고 지원한 건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고든에 그런 게 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부분입니다. 보통 저는 왼쪽으로 멀리 걸어가고 벤이 저를 짊어줍니다. 벤, 저는 왼쪽으로 멀리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가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한 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답은: 아니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것인가요? 네 . 이제 당신은, 글썄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저 교수일 뿐이에요, 뭐든. 하지만 제 질문은 요한 계시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과 제가 지혜문학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섞은 것으로 봅니다.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은 때때로 함께합니다. 제가 지혜문학을 공부할 때 잠언을 알고 계신가요? "지혜로운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어리석은 아들과 딸은 어머니에게 근심을 가져다줍니다." (잠언 10:1)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유, 어리석은 아들과 딸은 어머니에게 근심을 가져다줍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어리석은 아들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다치나요? 현명한 아들과 딸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기뻐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실체화됩니다. 반복적으로 실체화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어리석은 아들과 딸이 어머니에게 근심을 가져다주는 이유에 대한 이론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인스턴스화된 각 가족에서 인스턴스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 중에 이걸 본 사람이 있나요? 인스턴스화라는 컴퓨터 용어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론이나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담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 계시록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제 눈을 이 접근 방식에 뜨게 한 것입니다 . 지금 저는 책의 마지막에 적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더하는 사람은” 그에게 무엇이 더해질까요? “이 책에 무엇이든 더하는 사람은 이 책의 재앙이 그 사람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서기 1000년경에 그렇게 해서 책에 재앙을 더한다면, 이 책이 그 사람에게 닥칠 것입니다. 아니면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재앙은 이 책에 더하는 사람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누구든지 이 책을 더하면, 어느 시대에 재앙을 읽든 그의 책이 당신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러한 재앙이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역사적 접근 방식이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 일어났다고 말하고, 그들은 돌아가서, 글썄요

, 이게 로마의 몰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몰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은 큰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요한 계시록이 일종의 지혜 문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그와 유사한 것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체화되어 다가올 큰 재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큰 재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는 봅니다.

플러그는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큰 일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며 적그리스도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말이 되나요? 저는 얼마나 편안한가요? 저는 그다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 이론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제 이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힐데브란트,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당신만 무언가를 말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나요? 네. 당신이 미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제가 그것을 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와 묵시문학을 다루며 지금 제가 하는 최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책을 이해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데이브 매튜슨이 제 머리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 저는 발을 땅에 대고 착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힐데브란트, 당신은 발을 땅에 대고 착지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착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이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저는 그리스도께서 현실로 돌아오시고 큰 일이 일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땅에 착륙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역사적 접근 방식과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들이 천년왕국 이전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전쟁 이후 제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여기 옆으로 멀리 가서, 여러분의 사람들은 왼쪽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역사가 일어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것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환난의 7년 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환난이라고 부르는 7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륜적 모델이고, 저는 힐데브란트, 당신은 더 이상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950년대와 60년대, 70년대에 붙잡혀 있었다면. 이것은 사용된 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표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하나는 환난 기간 전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휴거라고 부릅니다. 휴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휴거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그의 사람들을 데려갈 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들어올려질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는 두 사람이 방앗간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진실의 핵심에 기초하고 있나요? 답은,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떠나서 이상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난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환난 전에 돌아오십니다.

중간 환난 휴거가 있는데, 환난 기간 동안 처음 3년 반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환난의 마지막 나쁜 절반 전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중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버스웰은 그것을 주장했고 그는 지금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이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간 환난 휴거 입장입니다. 그런 다음 Gundry와 같은 사람들이 학교를 나갔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였더라? West였던 것 같습니다. 서부 해안에 있습니다. Westmont 또는 뭔가 [농담]. 어쨌든 Westmont 출신인 Robert Gundry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7년 환난 후에 돌아오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겪고 나서 봄,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일종의, 그들이 전 환난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환난 전에 돌아오십니다. 중간 환난, 중간 휴거, 그리고 환난 후 휴거. 환난 전, 중간, 환난 후를 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땅을 다스리시는 천년 통치가 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습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끝나면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20장은 천년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다시 풀려납니다. 그는 다시 한 번 인류를 속이고, 땅에 심판이 내려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무궁토록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이며, 이 책이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경륜적 차트 체계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의 어떤 측면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것이 아마도 당신의 조부모님이나 아마도 당신의 부모님 중 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예,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 그냥 마무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앞서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상징주의입니다. 그가 묘사한 1장의 상징주의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돌아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보았습니다. 나는 일곱 개의 금등잔대를 보았고 일곱 등잔대 가운데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옷을 입고 다가와서... 네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신비는 이것이니, 일곱 교회의 일곱 천사의 일곱 별과 일곱 등잔대입니다."라고 말하고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13장에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세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고 그의 숫자는 여섯 여섯, 여섯입니다."라고 말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손등이나 이마에 붙이는 것이었고, 실제로는 칩이 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리에 칩을 넣고 신용 카드를 만드는 대신, 그냥 가서 신용 카드에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멋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손목에 넣고 당신이 올라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의 손목을 잘라내는 거죠. 흥미롭네요.

제가 농담을 한 것을 잠깐 멈추겠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무엇이든 사고팔려면 그 숫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고팔려면 그 숫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전에는 그들에게 표식이 있고, 사거나 팔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100년 전이나 50년 전에는 가능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지금은 가능할까요?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 동안은 이런 일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완전한 바보라고 비웃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끔은 웃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비웃으셔도 되지만,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데, 이야기하는 내용 중 일부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실제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숫자는 6, 6, 6입니다. 저는 우리가 당시에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로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네로의 이름이 숫자 666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6은 숫자와 문자가 같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 원리, 즉 숫자와 문자가 바뀌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 6 6 6이 네로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네로는 이 통치의 후반에 초기 교회를 크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당시에 6, 6, 6이 있는 이 숫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빌론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앞서 말했듯이, 사실 저는 베드로전서 5:13에서 그 참조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빌론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자가

문안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마가도 문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었고, 지금은 로마에 있었고 그는 바빌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구덩이 메뚜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메뚜기는 긴 머리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히피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피족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사실 제 아내는 긴 머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불행히도 그녀가 제가 포니테일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진지합니다. 정말 진지합니다. 제 아내는 온유하고 온순하며, 화살과 그물을 따는 사람처럼 곧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포니테일을 기르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당신은 내가 결혼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지만, 어쨌든, 오, 짜증나. 이 녹음은 녹음된 거야. 안녕, 애넷. 사랑해. 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여기서 벗어나게 해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신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신문의 해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집어 들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매핑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것이 정말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해.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의 방향, 암시, 그리고 구약성경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어.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의 환상으로 가득 찬 구약성경 없이는 이해할 수 없어.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할까. 11장 19절에,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서 봤지? 솔로몬과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었고, 그의 성전 안에는 그의

언약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언약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언약궤에 있던 세 가지 물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원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발람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 못된 녀석,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성적 부도덕을 범하도록 유혹하도록 가르친” 발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에서 이것 중 일부를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를 주리라.” 생명나무는 우리를 어떤 책으로 데려갑니까? 창세기와 에덴동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대해, 머릿속에서 그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22장 14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봅시다. 생명나무는 일년에 열두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꽤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출애굽기의 재앙을 모델로 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메뚜기가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출애굽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됩니다. 암시가 매우 강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하나의 세계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언급하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마겟돈에서 싸우러 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참여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사방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계화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함께 기수와 말과 그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짐승이 그와 함께 잡혔더라. 그의 대신으로 이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붙잡았고, 여기서 저는 흥미롭게도 짐승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있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맞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르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악한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사악한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셋 중에서 용은 사탄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합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와 더 비슷하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은 이 사악한 삼위일체가 일어나서 진정한 삼위일체를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세계 개념, 세계화. 세계화는 언제 실제로 발생합니까? 세계화가 지금 큰 일입니까? 네, 정말 큰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심판은 흥미로운데, 계시록은 이 세 가지 심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일곱 봉인입니다. 그럼 일곱 봉인은 무엇일까요? 일곱 봉인은 책/두루마리를 여는 것이고 반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밀랍처럼 찍어서 봉인이 되고 봉인을 터뜨리면 책/두루마리를 더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두루마리는 봉인이 하나씩 깨지면서 열립니다. 또 다른 것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일곱 봉인이 열리고 책/두루마리가 열린 후에 일곱 나팔 심판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 심판이 있습니다. 이 그릇들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람들이 계시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일곱 그릇과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서 땅에 심판을 쏟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의 많은 부분은 4장부터 18장쯤 16장까지 이 일곱 인장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그릇 심판을 설명합니다.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책의 중심이며, 이는 우리가 아마도 더 발전시켜야 할 주제입니다. 예배의 노래. 그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부르나요? 그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덮여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까지 사방에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낮과 밤, 그들은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계셨고 계시고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입니다. 누군가에게 익숙한 소리인가요? 그들이 그것을 Doxology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따온 것인가요? 요한계시록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노래와 예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해 논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바로잡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대표되고, 12사도가 대표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가 모든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늘에 눈물이 있습니까? 답은 예입니다. 눈물이 닦아지므로 닦아야 할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데 성전은 없고, 책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은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절정은 인류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이고,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고, 우리는 만나서 평화와 조화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는 온갖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만남입니다. 책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꽤 흥미롭지만, 일곱 교회와 다른 것들을 다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한 교회만 읽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매우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칭찬, 정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 패턴을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곱 교회가 교회 역사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맞는 말은 아닐 것 같지만, 마지막 교회만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들어보세요. 익숙한 소리인가요? 이걸 계시록 3장 14절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아멘, 신실하고 참된 증인의 말씀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자"인 그리스도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함을 나는 안다. 네가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함을 나는 안다. 네가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네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미지근한지, 왜 그들이 그에게 혐오스러운지 궁금하시죠? "너는 내가 부자라고 말한다. 나는 재물을 얻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네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입을 흰 옷과 입을 수 있는 부끄러운 별거벗음과 눈에 바를 연고를 사서 볼 수 있도록 권면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렬하고 회개하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승리한 자에게. 나는 승리한 자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권리를 주겠다. 마치 내가 승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았던 것과 같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라도디게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아니, 너는 불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가 오늘날과 정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저는 모든 천년왕국 이론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전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이 천년 왕국 전에 돌아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이 구덩이에 갇혀서 자물쇠와 열쇠로 잠긴 채 천 년 동안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이 비유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문자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에서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옵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묶여 있는데 그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도덕적이라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파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확산으로 묶였습니다. 사탄은 묶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둘러보면 사탄이 어디에나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이 무천년설의 입장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의 통치는 천년왕국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사실 교회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교회 통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탄이 지금 정말 묶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풀려났을까요? ISIS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기독교인의 머리를 베어낼 때, 제 말은,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트 밀레니얼과 포스트 밀레니얼이 더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19세기에 나왔고, 그들은 세상이 천년왕국 이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포스트 밀레니얼 재림.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마침내 세상은 좋아져서 결국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그것이 포스트 밀레니얼주의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밀레니얼주의자로서 세상을 돌아볼 때,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이론은 더 이상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 실례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거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이 일로 몇몇 학생들이 화를 냈습니다. 항상 이런 정치적 논평을 합니다.

농담이었어요. 가끔씩 정말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멍청한 농담으로 제 정치적 입장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천년왕국 전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초기에 돌아오고,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가 다스리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습니다. 그들은 칼을 쟁기로 만들고 세상은 평화롭고 조화로워요. 무천년왕국은 교회가 지금 교회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년왕국이고, 후천년왕국주의는 19세기 후반에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여전히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실 거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후천년왕국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이지만, 그 입장은 신뢰를 잃었어요.

요점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는 경륜주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웃으며 멍청한 근본주의자, 멍청한 경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하하하, 그는 멍청하지 않았나요?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일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 아버지는 하루에 16시간 일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교사이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교사가 실제로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평생 창문으로 가곤 했고, 저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며,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가 오늘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의 삶을 바꾸었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요? 그게 그의 삶을 바꾸었나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지도 모르니 어머니를 사랑해야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을 돕고 싶어."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나 기대했고, 그의 소망은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만날 수 있었던 이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종말론적 관점을 무시하는 것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미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윤리를 개발하고, 당신의 윤리를 허용하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지금 돌아오신다면 당신이 하실 일에 의해 형성되도록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들키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월슨의 진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슨 박사를 사랑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역사나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을 보실까요? 당신은 오,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이런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에 몰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빛 속에서 사는 축복받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집에 온다면, 제 아이들도 집에 온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엘리엇은 이번 여름에 집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귀환을 고대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집에 올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이 집에 올 때?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여러분의 부모님 중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떠나 계셨기 때문에 지금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시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는 부모님이 "그 남자 잊어버려. 그들은 떠났어.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소망입니다.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번호 27의 마지막 강의를 하는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입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입니다.